

자료제공 : 2024. 2. 21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

김만호

02-2133-815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2쪽

도로관리팀장

원영구

02-2133-8152

### 서울시, 21일(수) 대설예비특보에 제설대책 2단계로 격상...폭설에 총력 대응

- 기상청 21일(수) 오후4시 서울지역 대설예비특보 발표...제설대책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
- ▲인력8,488명 ▲장비1,168대 투입...제설제 살포, 눈 밀어내기 등 즉시 대응체계
- 21일(수) 저녁 시간대 강설 대비 철자·22일(목)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 연장 운행
- 시,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, 22일(목)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당부

- 기상청에서 2월 21일(수) 오후 4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, 서울시는 즉시 제설대책을 2단계로 격상하고, 폭설 상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.
- 제설대책 2단계에 따라 시는 8,488명의 인력과 1,168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다.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,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기 위한 제설작업 등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고, 도로순찰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.
- 서울시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되기 전날인 20일(화) 저녁 11시부로 보강근무에 돌입했으며, 강원도의 경우 오후 5시 기준 많은 곳은 10<sub>cm</sub>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나, 서울은 현재 적설량 없이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다.

- 또한,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1~8호선·신림선,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22일(목)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운영해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  - 출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07시~09시 (연장) 07시~09시 30분
  - ※ 9호선, 우이신설선은 비상대기열차 운용하여 비상시 신속 투입
  
- 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 쌓일 우려가 있으니, 22일(목)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차량운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.
  
-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서울시는 제설대책 2단계에 따라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”이라며 “시민들께서도 내일 아침 출근길에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라고 말했다.